

## 4. 재

### (1) 영모재(永慕齋)- 주암면 죽림리 죽림마을 상호정 뒤 소재

1820년대 순조 때 옥천 조씨 문중에서 세운 재각이다. 옥천 조씨 순천 입향조인 건곡 조유와 그의 아들 죽촌(竹村) 조승문, 그리고 손자 구천(龜川) 조철산 등 3세의 충효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조승문과 그의 아들 철산은 세조의 왕위찬탈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조카인 성삼문과 함께 화를 입은 인물들로서, 1779년(정조 3) 부자 양충(兩忠)의 정려문이 세워진 바 있다. 『충평속지』에 부사 김정균(1824~1826년 재임)의 기문이 전한다.

### (2) 세수재(世守齋)- 조례동 소재

양천 허씨 문중에서 세운 재각이다. 허형(許亨)과 공(珙) 형제 및 형의 자손인 현감 회인과 임란 충신 일(鎰)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 허영탁(許永濯)·화삼(樞三)·종영(宗英) 등이 세웠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며 공암(孔巖) 허찬이 쓴 기문만 『충평속지』에 전한다.

### (3) 오사재(五思齋)- 주암면 요곡리 소재

1776년(영조 52) 승지 정빈(鄭•)을 추모하기 위하여 경주 정씨 문중에서 세운 재각이다. 정빈은 임진왜란 때 숙부 정사준과 함께 이충무공 막하에서 의곡활동을 펼치는 등 큰 공을 세움으로써 군공에 의해 사헌부감찰·아산현감 등의 관직을 지낸 뒤, 정조 때 승정원 좌승지로 추증되었으며 옥계서원에 배향되었다. 송철헌(宋哲憲)의 증수기로 보아 1920년에 대대적으로 증수한 뒤 1956년에 현지에 이전하였다. 외당(畏堂) 고한주(高漢柱)가 상량문을 짓고, 11세손 정규조(鄭圭朝)가 중건기를 썼다.

### (4) 만각재(晩覺齋)- 주암면 궁각리 소재

영조 때 양천 허씨인 주부(主簿) 허엽(許僎)이 세운 재각이다. 허엽의 자는 사혁(士奭)으로서 1735년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주부에 이르렀다. 1845년 순천부사 이종병(李種秉)이 쓴 기문과 함께 1922년에 6세손 허영(許永)의 요청으로 윤녕구(尹寧求)가 쓴 기문이 『충평속지』에 전한다.

### (5) 나송재(蘿松齋)- 해룡면 상내리 소재

영조 때 동지중추부사 양경갑(梁慶甲)이 세운 재각이다. 양경갑은 학포 양팽손의 7세손으로 자는 경보(敬甫), 호는 나송이며 학문이 뛰어나 음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1922년 그의 5세손 허현필(許顯弼)의 요청에 따라 쓰여진 윤녕구의 기문이 『충평속지』에 남아 있다.

(6) 향약재(鄉約齋)- 주암면 광천리 소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1호

1796년에 주암면 향인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순천향약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1850년(철종 1)에 향로(鄉老)들이 주동이 되어 세운 재각이다. 1855년 부사 신석희(申錫禧)가 쓴 창건기와 함께 1858년에 역시 당시의 순천부사 박문현(朴文鉉)이 쓴 「향약계안서(鄉約稷案序)」가 『증평속지』에 전한다.

(7) 담락재(湛樂齋)- 주암면 구산리 소재

1841년(헌종 7) 옥천 조씨 담헌(湛軒) 조진룡(趙鎭龍)이 세운 재각이다. 형 진익(鎭翼)과 유난히 우애가 두터웠던 관계로 형제간의 평생 동락처로 삼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1920년 최영조(崔永祚)가 쓴 기문이 전한다.

(8) 정이재(靜而齋)- 옥천동 소재

고령 신씨 처사(處士) 신정(申淨)이 정이라 자호(自號)하여 세운 재각이다.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1922년 신정의 손자 철휴(喆休)의 요청에 따라 윤영구가 쓴 기문이 『증평속지』에 전한다.

(9) 정헌재(靖獻齋)- 주암면 죽림리 소재, 전라남도 지방민속자료 제31호

1781년에 건립된 옥천 조씨 문중의 재각이다. 옥천 조씨 순천 입향조 조유와 그의 부인 담양 국씨, 그리고 그 손자 첨지중추부사 조지산(趙智山) 이하 5대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송재성(宋在晟)의 기문이 남아 있다.

(10) 연당재(蓮塘齋)- 주암면 한국리 소재

1896년 옥천 조씨 조성여(趙性汝)가 세운 재각으로 덕은(德殷) 송병순(宋秉珣)이 지은 기문과 함께 조병휴(趙炳休)의 시가 남아 있다.